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잡은 두 마리 토끼

- 전 회계업무의 전산화 및 모바일 출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성 증대와 투명성 제고 -

작성자: 정보전산실 정보운영부 이우식 대리(053-663-8252)

1. 추진배경

1969년 한국감정원 설립 이래, 수기로 시작 된 회계업무는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전산화되었고, 현재의 경영정보시스템인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직원들은 MIS를 이용하여 회계뿐만 아니라 인사/근태/연수, CRM/경영통계, 예산, 급여관리, 복지후생, 감사지원 등의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그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단순 반복적인 자료입력으로 데이터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중복 업무를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회계업무 중 지출업무(지출결의, 전표등록, 자금집행 등)에서 자료 중복입력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지출업무 절차에 대한 간소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2013년도에 출장시스템이 구축된 후로 모든 출장을 해당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표준지/표준조사, 공동주택 등 현장에서 진행하는 조사업무가 많은 한국감정원의 특성 때문에 매번 감사 때마다 연간 출장일수가 과다하여 실제 출장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모바일 출장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내부 출장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출장등록에서 여비정산까지 자동화하여 조사업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감사원 "감정원, 공동주택기록 사실과 달리 관리"(종합)
부동산 | 황병국 기자 | eco@yna.co.kr
승인 2015.03.09 17:15:52

-감정원 대응조치 등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국 기자 =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잘못 관리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 등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해 9월15일부터 같은 해 10월24일까지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지난 2005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해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사자들의 출장기록이 없어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고, 기록이 없는 932개 지역 중 155개 지역 696개 단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조사표조차 없었고 공동주택 사진도 새로 등록되지 않았다.

2. 추진내용

또한, 시중에 더존, SAP 등 상용 ERP시스템 존재로 우리원에 적합한 시스템을 선별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더존을 도입한 한국산업단지공단, SAP을 도입한 한국수력원자력 및 자체개발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주택금융공사와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였고, 우리원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나. 다양한 조사업무에 따른 다양한 출장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는 조사업무가 표준지(기본조사)/표준주택, 지가변동률, 공동주택가격, 주택·월세 가격동향 등 다양하고, 그 외에도, 각 조사업무 별로 출장내역이 다를뿐더러, 숙박출장인 경우, 조사종류와 경유지가 다수 견인 경우 등 수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었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려웠다.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면서도 간편한 출장처리가 가능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각 조사업무별 담당자들과 끊임없는 회의 및 현장 테스트를 하였고, 이를 통해 모든 조사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모바일 출장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4. 주요성과

가. 업무효율성 1.5배 개선

기존의 처리방식에서 구매시스템 개선을 통한 지출결의시스템 도입으로 수기 입력 및 단순 반복 업무의 최소화로 업무효율성이 제고되었고, 수작업에 따른 오류발생 빈도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구매에서 자금이체까지 표준화된 자동과정으로 효율성 증대는 물론, 지출관련 통계자료 추출이 용이해졌다.

나아가 기존 98명의 직원이 처리하던 업무를 효율성 증대를 통해 70명으로 28명을 감소시켰다. 이는 인력 활용도가 약 28.5% 향상된 것이고, 실제로는 28명의 직원을 타 업무에 배치함으로써 약 50%에 해당하는 업무 효율이 개선되었다.

나. 출장비 투명화

2013년부터 MIS에서 출장을 관리하였고, 계속적으로 출장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이번 출장여비 개선과 모바일 출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출장여비 청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강화로 과다 지급되거나 착오 지급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현장조사 출장을 현장조사 앱에서 등록 및 관리하고, 내부 출장시스템과 연계하여 출장 등록에서 여비정산까지 자동화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증대를 이루었고, 매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조사마다 의혹이 제기되었던 출장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5. 성공요인 분석

가. 탁월한 선택! 기존시스템 고도화!

한국감정원의 특수한 업무 특성을 상용 ERP시스템에 담아내려고 했다면 실패했을 것이다. 타기관 현황조사를 통해 장·단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자체 개발시스템을 고도화하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과 매년 지출될 라이센스 비용을 아끼는 덤까지 얻을 수 있었다.

나. 전사적인 노력과 열정

한국감정원 직원들은 각종 조사업무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시스템 개선을 통해 발생한 여유 인력을 조사업무로 배정하게 되면, 한시름 덜게 될 것이라는 모든 직원들의 염원으로 정보전산실을 비롯하여 각 조사업무 담당부서가 빌 벗고 동참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6. 향후 계획

회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단순 반복 업무나 수작업에 따른 비효율이 존재한다. 각 시스템을 분석 후, 업무 표준화 및 자동화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출장관리시스템에서 조사지역의 행정구역간 거리정보 및 교통비 DB 구축으로 조사종류, 행정구역별 출장목록에 경유지별 교통비를 한 눈에 확인 가능한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